



# 경영주의 방재의식 결여가 대형사고 유발



박 태 유 <강동소방서 서장>

## 1. 화재발생 상황

내무부에서 발간된 1985년도의 소방행정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 전국 화재 발생상황은 1950년부터 1959년까지 10개년 간의 1일 평균 화재발생건수는 4.5건이었으며, 연간 1백37억원의 재산피해와 4백26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1980년대에 와서는 1일 평균 18.8건 발생에 5백73억원의 재산피해와 1천1백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평균 4배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임으로써 화재사고는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100명 이상의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대형화재 사건으로는 대연각 호텔, 서울시민회관, 대왕코너 화재를 들 수 있다. 이들 3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만도 4백8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재산피해는 1974년 1월 23일 15시 45분에 발생했던 구미공단

내 운성방직 화재가 피해액 1백50억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세광제지 화재 34억원, 금성사 화재 29억원, 충남방직 화재피해 20억원 등으로 재산피해가 13억원 이상인 대형화재가 6건이었으며,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공장 화재만도 51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산업시설의 업종을 분류해보면 섬유산업 시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무공장 5건, 정미소 4건, 제지공장 4건, 석유화학공장 3건, 기타 산업시설 18건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이 많은 산업시설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4년도의 전국 화재 발생 총건수는 8천5백62 건이었으며 그중 공장화재는 9백35 건에 피해액은 55억5천7백만원으로 전국화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 2. 산업시설의 대형화재 요인

가. 화재하중이 높은 작업조건 대형섬유공장, 제지공장, 고무공장, 정미소와 같은 업종은 작업공정상 화재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방화구획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석유화학 계열의 공장은 화재 초기진압에 손쓸 사이가 없이 연소확대되어 버림으로써 화재발생과 동시에 대형화해 버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자산업이나 조선업과 같은 대상

은 화재규모가 조금만 확대되어도 대형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나. 경영주의 방재의식 결여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대상으로서 법정소방시설이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됐거나 근본적인 시설미비 대상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에 의한 감지나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대형화재로 연소확대 된것은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잘 못 되었거나 산업시설의 방재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반복된 행정지도시마다 시정을 촉구하였거나 또한 행정처벌을 가했음에도 경영주의 적극적인 개수의지 부족으로 급기야는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던 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 허술한 방화관리체제

산업시설의 규모가 대형화함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이 다양화해가고, 건축기계설비의 구조도 복잡해 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 및 제품도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운영하는 종사원의 수도 많이 증원되었다. 그러나 방화관리체제는 기업의 규모에 비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법적 의무요건만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유

지되어 왔기 때문에 각종 방재설비의 유지관리나 종업원에 대한 방재교육훈련, 각종 자료관리 및 화기취급기구나 설비의 통제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 관계로 예방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여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소진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 3.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

#### 가. 화재하중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

불은 연소조건만 형성되면 언제 어디서고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완벽한 화재예방은 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위치, 구조설비가 방화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겠고 각종 화기취급기구 및 설비의 안전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조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안정한 설비, 불결한 환경, 무질서한 행동속에 위험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와같은 위험요인이 제거되었을 때 화재하중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경영주의 관심 제고와 자위소방단체 확립

경험한 바에 의하면 화재사고를 당해 본 사람이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화재를 경험한 사람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구조설비 이상으로 완벽한 방재설비를 자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나 각종 자재에 이르기까지 화재보험에 서둘러 가입하고 자체 방화관리체제를 강화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으로 경영주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산업시설은 사내기강이 확립되어 있어 화재예방도 잘 하지만 사소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수습으로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경영주가 방재에 관해 관심만 기울이면 사내 방재대책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되어질 것으로 믿어진다.

#### 다. 철저한 행정지도와 방화진단 요원의 자질향상

하나의 산업시설이 가동될 때까지는 여러 과정의 허가 와 준공검사가 이루어진다. 방재분야만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위시하여 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보일러, 상수도, 공해시설, 엘리베이터등 재해발생 요인이 있는 설비 및 구조물 또는 기계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시설들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시설지도와 기술감독을 받아서 설치하

게 되고 완공검사 후에도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실로 유사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과거의 사고 사례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방재시설의 허가 와 준공과정에서 보다 완벽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방재시설이 화재발생 및 진압활동에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소방검사시 이들 시설에 대한 정밀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된 결함사항에 대하여서는 소방법을 적용,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재 예방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의 진단요원에 대한 증원과 자질향상 문제라든가 관련법규의 정비등 연관된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므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산업시설의 화재에 대한 전망

산업시설에 대한 화재발생건수는 증가되더라도 피해규모가 큰 대형화재 사고는 감소될 것으로 본다. 1960년대에 건설되어 비교적 화재 취약성이 많은 섬유공장이나 정미소, 고무공장과 같은 대형산업시설들이 노후되어 새로운 구조로 개축되어가고 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이후에 건설된 산업시설들은 대부분이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70년대에 비하여 소방 행정력의 보충과 화재예방 지도능력의 향상으로 중요산업시설에 대한 방화관리체제가 날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며 매일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을 통하여 전종업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교육훈련으로 기초적인 방재지식이 보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산업시설에는 빠짐없이 청원소방원을 배치하여 자체 화재예방 및 진압전문 요원으로 육성하여 소방력의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있다. 아울러 소방관서나 한국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안전점검도 화재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최근 소방설비의 제작 및 시공기술의 향상으로 화재예방과 진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1970년대와 같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던 대형화재는 앞으로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